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7.7~2015.7.1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2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조계종출판사
3	알기쉬운 쏙쏙 능엄경	현담스님	도서출판선
4	초발심자경문강설(무비스님의)	무비스님	조계종출판사
5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6	지장기도(손으로쓰고마음으로그리는)	지원스님	민족사
7	미산스님초기경전강의(개정판_양장본)	미산	불광출판사
8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9	최초의 불교는 어떠했을까-원시불교	나카무라하지메/원영	문예출판사
10	흘반난,밥먹기어렵다	김진태	불광출판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붓다 생애 및 불교사가 한눈에 '쏙쏙'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

이자랑 · 이필원 글
배종훈 그림
민족사 펴냄
1만 3800원

우리들 삶 속에 깊이 자리한 불교는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다. 사실 팔만대장경이 상징하듯 방대한 불교경전과 2600년의 기나긴 불교사 속에서 넓고도 깊게 발전한 불교를 어렵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불교를 아주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젊은 불교학자로 주목받는 동국대 이자랑 교수와 이필원 교수가 함께 글을 쓰고, 카툰으로 불교를 전하는 배종훈 작가가 도표를 그리며 의기투합해 만든〈도표로 읽는 불교입문〉이다. 저자는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인도서 발생한 불교는 '어떻게 시작해 어떤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 갔을까?' 이 책은 이 질문에 가능한 한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답해서 불교에 처음 입문한 이들이나 초심자는 아니어도 본격적인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집필했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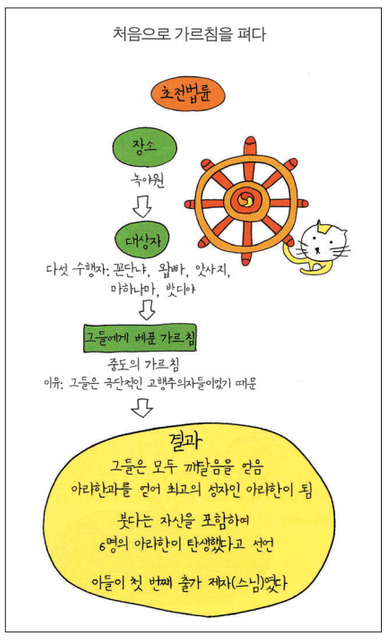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 책의 큰 특징이 무엇일까. 우선 서술이 매우 간결하고 체계적이다. 또한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이란 제목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한 편 한 편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도표만 봐도 불교의 윤곽이 그려지고, 어렵게 느껴진 불교가 친숙히 한발짝 다가서게 만든다. 아울러 도표 옆에 상세한 주(註)를 달아서 불교사전이 없어도 불교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편집해 입문서다운 입문서, 최상의 입문서라는 입소문이 무색치 않다.

저자는 "붓다의 생애를 시작으로 인도서 불교가 거의 사라질 때까지 인도불교의 긴 역사를 도표와 함께 100여 개 이상의 소제목 아래 체계적으로 담았다. 두 명이 공동 작업을 한 덕분에 교리와 교단사 양쪽을 모두 적절히 고려해 서술할 수 있었다는 점 역시 이 책이 지니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 책은 총 다섯 개의 장으로 나눠 편집, 불교서 꼭 알아야 할 100여 개의 소제목 아래 핵심 내용을 간결히 담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1장 '붓다의 생애'에서는 탄생서부터 열반까지 80여 년에 걸친 붓다의 삶을 보여주는 한편 초기에 불교교단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서 주목할 만한 몇몇 사건도 포함해 서술한다. 2장 '붓다의 가르침'에서는 중도, 8정도, 4성제 등 불교의 핵심교리를 비롯해 불교수행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가르침을 두루 망라해 설명한다. 3장 '불교교단의 성립과 발전'에서는 붓다의 열반 후 분열을 거듭해가며 부파로 발전해 가는 불교 교단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서술한다. 4장 '대승불교의 탄생과 발전'서는 불교사에 중요한 획을 그은 대승불교의 탄생과 의미, 그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5장 '불교교단의 생활'서는 교단을 구성하는 출가자와 재가자가 일상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한 내용 및 출가자의 의식주 생활과 의사 결정 방법에 대해 다뤘다. 당시 인도의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불교공동체가 지닌 주요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특히 이 책은 불교학계서 소장학자로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는 이자랑 교수님과 이필원 교수가 공동 작업을 한 덕분에 불교 전반에 대해 적절히 고려해서 서술했다. 뿐만 아니라 짧지만 알찬 내용으로 구성돼 교재로 활용하기 안성마춤이다.



배종훈 작가가 그린 도표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정리한 입문서
도표 옆에 상세한 주 달아 공부 편리
가장 큰 장점은 서술 간결하고 체계적
교리와 교단사 양쪽 적절히 고려해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유쾌하고 풍성한 정토 세상으로 초대



무량수경

도암 스님 역
맑은소리 맑은나라 펴냄
1만 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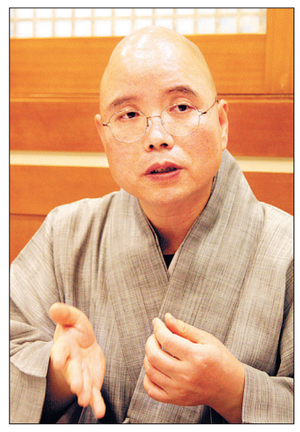
통도사 율원 교수사 도암 스님〈사진〉이 〈유쾌하고 풍성한 정토세상 무량수경 회집본〉(이하 회집본 무량수경)을 번역했다. 도암 스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아는이는 많지만 정토법문의 이론과 수행방법 그리고 그 결과로 얻는 유익에 대해선 아는 이가 적다고 말했다. 도암 스님은 책 〈회집본 무량수경〉으로 불자들이 바른 수행 이정표를 얻는 것이 집필 동기라고 했다.

스님은 먼저 책에서 제시한 수행법을 따르면 마음의 청정함을 얻는다며 수행 할 것을 강조했다. "마음으로 염하고 입으로 부르는 것이 일치 할 때 번뇌가 사라진다"며 "번뇌 없는 상태로 아미타 부처님을 지속적으로 부르면 삼매에 이르며 번뇌의 뿌리가 뽑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은 극락 왕생 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얻는 유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염불을 하는 동안 극락을 바라보기에 이 세상을 잠시 머무는 삶으로 인식하고 집착을 여의고 지혜를 얻는 다는 것이다.

도암 스님은 특히 아미타불 염불의 장점으로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접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은 모두 중생의 근기와 관련이 있다. 각각의 법문은 모두 훌륭하고 평등해 중생의 입장에서 우열을 논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했다. 책 〈회집본 무량수경〉의 염불 수행법은 교육 수준이 높거나 낮아도 또한 어느 시대에 살아도 충분히 적용가능하며 방법이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효과는 크고 빨라서 혜택을 얻고 정토 세계에 태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교사상이 철저한 '자력 구원(自力救援)'을 근본으로 하지만 무량수경 정토사상은 부처와 보살의 원력에 의지해 중생을 구제하고 불국토에 이르도록 하는 '타력구원(他力救援)'이 근본정신이다.

도암 스님은 "아미타 부처님은 성불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중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제도 할 수 없다면 성불 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셨다"며 "중생들이 아미타불을 끊임 없이 염하면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처가 성취한 것과 같이 무상정각을 쉽게 이룰 수 있다"고 당부한다.

정토사상을 담고 있는 경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이 있는데 이를 들어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이라고 한다. 〈무량수경〉은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경전이다. 도암 스님이 번역한 〈무량수경〉은 1932년 중국 하련거 거사에 의해 수집된 〈불설대승무량수장엄청정평등각경(佛說大乘無量壽莊嚴淸淨平等覺經)〉이다. 중국에서는 무량수경이 12차례 번역 되었고 5종의 판본이 남아 있지만, 5종의 판본 가운데 대표 판본을 정할 수가 없어서 대중화가 어려웠다. 이는 중요한 내용이 여러 판본의 무량수경에 나눠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이 번역한 하련거 거사의 〈불설대승무량수장엄청정평등각경〉은 5종 판본 내용이 빠짐 없이 수록됐다. 〈회집본 무량수경〉의 첫 장은 먼저 수 십년간 무량수경 정토법문을 설한 대만 정공법사의 강의서 발췌했다. 이는 일반 독자들이 경전 내용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공법사의 강의 후 본격적인 무량수경 회집본 독송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역자인 도암 스님은 1991년 통도사 월파 선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 철학과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통도사 승가대학, 봉선사 능엄학림서 수학했다. 봉선사 월운 해룡 강백으로부터 전강을 받았으며, 율사 파계사 여산 철우 스님, 통도사 중산 혜남 스님으로부터 전계 받았다. 이후 백양사와 송광사 승가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했으며, 행자 교육원과 비구계산림 교수사, 갈마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통도사 율원 교수사로 있다.



아미타불 염불의 장점 상세히 소개
"중생 근기에 차별없이 접근 가능"
'타력구원' 이 근본정신… 원력에 의지
첫장, 대만 정공법사의 강의서 발췌

하성미 기자

우리 삶을 바꾸는 기적, 절 수행!

청견 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다스려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절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생생한 경험담!



다르마킹 칼리지
매주 화~토 오후 2시
절 교육 및 수행 점검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 스님의 신작!

전국에 108배 열풍을 일으킨 청견 스님이 그동안 천만 배의 절을 하며 체험한 이야기들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울림들을 담았다.

현대인이 겪는 몸과 마음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절 수행의 기본 동작부터 마음가짐,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첫 책보다 더욱 깊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간중간 그려 넣은 다양한 일러스트는 책을 보다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청견 스님 지음 / 신국판 / 328쪽 / 값 15,000원

깨달은 공동체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 전화 010-3487-0035 ● www.법왕정사.net ● 판매총판 : 운주사 02-3672-7181 ● 인터넷서점: 붓다북